



# 창조와 혁신을 위한 아시아태평양-한국 컨퍼런스(AKC)



글 강병호

호주 태즈메이니아대학교 교수  
Byeong.Kang@utas.edu.au

글쓴이는 부산대학교 수학과 졸업 후, 호주 태즈메이니아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 Graduate Diploma(준석사학위),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히타치(Hitachi) 연구소를 거쳐, 태즈메이니아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재 환태평양지역 지식인지학회 회장, 호주인공지능학회 이사, 환태평양 인공지능학회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한국 컨퍼런스 'Asia Pacific-Korea Conference on Science and Technology'(이하 AKC) 네 번째 회의가 호주 시드니 중심부에 위치한 시드니 힐튼에서 11월 20부터 22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AKC는 아시아를 비롯한 환태평양 지역의 한인 과학기술자들의 정보공유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일본, 중국,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의 한인과학자들의 모임이 주축이 되어 2008년 일본에서 시작되어 중국(2009)과 싱가포르(2013)를 거쳐, 시드니에서 열렸다.

2014년 AKC는 재호주뉴질랜드한인과학기술학술협회(이하 KASEA, 회장 박미라)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 회장 이부섭)가 공동으로 주관하였고, 'Creation and Innovation in Asia-Pacific(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창조와 혁신)'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기초과학, 생물학, 의료과학, 기계공학, 산업기술, 정보과학 및 기술, 토목 건축공학, 에너지 환경공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수준 높은 초청강연, 학술발표, 포럼, 포스터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아시아·태평양 전체에



▶ 이부섭 과총 회장(좌)과 박미라 KASEA 회장(우)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서 가장 큰 규모의 행사 중 하나가 되어 많은 교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행사에는 200여 명의 고급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참여했으며, AKC가 지향하는 정보지식의 공유 그리고 한인과학자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 총 12개 학회 분야, 12명 학술위원장으로 구성

KASEA의 박미라 회장과 과총의 이부섭 회장을 준비위원장으로 행사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행사준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AKC 행사를 위한 행사장과 호텔예약 등을 포함하여 식사 및 각종 전반에 이르는 모든 행사 준비와 진행을 담당하였다. 컨퍼런스에는 KASEA의 임원들이 회계 및 주제강연 세션담당(강병호 교수), 마케팅 담당(홍원희 교수, 박석천 교수)과 프로그램 담당(강승하 박사), 메뉴 담당(이두원 교수), 웹개발 담당(유원태 회원), 웹운영 담당(김은경 박사, 구태량 교수)으로 구성하여 AKC 행사의 준비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또한 호주 및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수십 명의 교민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자원봉사 도우미 · 행사 진행 요원으로 참여하여 진

행을 순조롭게 이끌어 주었다.

학회는 박미라 학회장(KASEA 회장)과 이부섭 학회장(과총 회장)의 조율 하에 생물학 및 의학(Prof.Sokcheon Pak), 화학 및 환경학(Prof.ByeongChul Kim), 도시공학(Prof.JeongHwan Doh), 에너지 공학(Prof.Soryong Chae), 식품영양학(Dr. SeungHa Kang), 통합 기술(Prof. Jinman Kim), 기계 및 항공우주공학(Prof. SangHoon Kook), 분자생물학(Dr. Grace Ji-eun Shin), 다분야학(Dr. Minhwa Lee), 물리학(Prof. Dukyong Choi)과 도시 계획 및 구조환경학(Prof. Hoon Han) 분야에 미래의 여성과학자를 위한 특별 세션까지 총 12개 분야에 12명의 학술위원장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기존의 주권국가(호주)를 포함하여, 뉴질랜드, 싱가포르, 중국, 일본 과협 소속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식 교류의 장을 한층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 AKC, 한국 · 호주 간 창조경제 협력과 일맥상통해

11월 20일 오후 200여 명의 참석자가 모인 가운데 개최식이 거행되었다. KASEA의 박미라 회장은 개회사에서





▶▶ 미래의 여성과학자를 위한 특별세션

AKC2014 행사의 목적을 소개하면서, 범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창조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강조하였다. 개회사에 이어, 이부섭 과총 회장, 이휘준 재호주대한민국영사관 영사, Michael Manton 한호재단 임원, 송석준 시드니 한인회 회장이 축사를 전했다.

이부섭 과총 회장은 모든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번 행사가 여느 행사와는 달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나라의 과학기술 연구자 및 지식인들과 산업체들의 지식교류를 위한 좋은 기회임을 강조하며 행사 발전에 관한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의 슬로건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창조와 혁신'을 언급하며, 2014년 호주 총리(토니 애벗)가 강조한 한국·호주간의 창조경제 협력과 일맥상통함을 이야기하였다. 이휘준 재호주·대한민국 영사는 4번째 AKC 행사가 시드니에서 개최됨을 축하하며, 행사 준비위원회인 KASEA의 역량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Michael Manton 한호재단 임원과 송석준 시드니한인회 회장 또한 호주 시드니에서 AKC와 같은 큰 국제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축하하였다.

### 기조연설과 5개 분야의 주제강연

20일 저녁에 진행된 기조 연설은 테리 펄서벌(Director, Broadband and the Digital Economy)이 발표하였다. 와이

파이와 모바일 기기의 역사, 그에 대한 호주 연구원들이 제안한 빠른 속도의 무선인터넷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었던 기술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책 그리고 자신들의 기술이 표준으로 채택된 과정을 설명했다. 특히 최종적으로 특허권을 유지하는 과정에서의 내용 등이 많은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어냈다.

주제 강연은 21일 오전부터 컨퍼런스 개최장인 힐튼 호텔에서 진행되었으며, 마거릿 브리츠 교수(Dean, University of Tasmania), 김진우 교수(Senior Lecturer,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홍석희 교수(Professor, University of Sydney), 은정 홀튼 교수(Research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이상천 회장(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 총 5개 분야의 강연자로 나섰다.

마거릿 브리츠 교수는 호주국민 관점에서의 혁신적인 문화창조와 그에 따른 호주정부의 여러 사업과 정책분야에 대해 강연하였다. 김진우 교수는 뉴사우스웨일즈의 임금 제정법에 대한 트렌드를 분석하여 그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 두 강연에 이어, 홍석희 교수는 빅데이터(금융 데이터, 소셜 데이터, 생체 데이터 등)의 시각화가 중요함을 발표하였다. 데이터에 따라 좋은 방법이 다르며, 시각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데이터 속에 숨겨져 있는 관계들을 찾아낼 수 있으며, 데이터

복잡성도 해결할 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천 회장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목표와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정부의 연구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마지막 강연자인 은정 홀든 교수는 호주경제의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인 광산에 대한 연구를 언급하며, 데이터 시각화와 분석이 무기물 탐사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보여주었다.

### 과학기술 컨퍼런스 분야별 프레젠테이션 및 포스터 발표

20일과 21일 오전까지 계속된 개회식과 기조 강연 및 주제강연을 마친 뒤, 곧바로 AKC의 정규 학술발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학술발표 프로그램은 각 분야의 다양성에 맞춰 11개 세션과 1개의 특별세션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세션들이 병행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11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호주, 싱가포르, 중국 등에서 초청됐으며, 총 100여 명의 프레젠테이션 발표자와 50여 명의 포스터 발표자들이 21~22일 이틀 간의 학술 프로그램에서 진지한 발표와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21일 저녁만찬에 참석한 많은 참가자들이 서로 자리를 바꿔가며 인사를 나누고 저녁 늦게까지 과학기술 지식과 관련된 토론을 이어갔다. 22일 저녁만찬에서는 초청연사인 테리 펄서벌 디렉터와 마거릿 브리츠 교수도 함께 참석하여 150여 명의 여러 과학자들과 활발히 교류하였다.

### 미래의 여성과학자를 위한 특별세션

스페셜 세션은 미래의 여성과학자를 위한 특별세션(Mentoring for Woman Scientist)으로서 초청된 연설자들이 많은 여성 과학기술자들의 본보기가 되는 시간이었다. 초청된 연설자로는 백희영 전 여성부 장관과 이혜숙 한국 여성과학기술지원센터(WISET) 회장이 초청 연사로 참석하여 여성과학기술자들에게 미래 설계에 대해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특별세션 안에 총 5명의 패널(한순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회장, 은정 홀든 Western Australia University 교수, 이미경 Murdoch University 교수, 박정은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교수, 김옥자 Yanbian University 교수)들이 멘토가 되어 많은 여성 과학자들에게 조언을 해주었다.



▶ 테리 펄서벌 디렉터(Broadband and the Digital Economy)가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 한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과학기술 교류

이번 컨퍼런스는 한인과학기술 연구원과 그의 동반가족을 포함하여 총 200여 명이 참여한 행사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의 교민과학기술자들과 아시아·태평양 국가 현지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연례 과학기술 컨퍼런스가 되었다. AKC는 여느 행사와는 달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나라를 아우르며 한인사회에서 보기 드문 큰 행사로 성장하였다. 또한 AKC 행사는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을 모두 다루었다. 양적인 부분으로는 다양한 국가에서 참여한 많은 수의 교민들이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생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 즉,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KASEA의 임원 및 회원들이 몰심양면으로 자발적으로 행사 준비를 도왔고 호주 및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수십 명의 교민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자원봉사 도우미·행사 진행 요원으로 참여하여 진행을 순조롭게 이끌어 주었다. 이 모든 행사준비위원회 및 자원봉사자들의 단결된 조직력이 있었기에 이번 행사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이벤트와 관광프로그램, 그리고 저녁만찬 등 모든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 (ST)